



# 산과 인간

‘세계 산의 해’가 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되어야



김범일 산림청장

**올** 해는 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다. UN에서 금년을 ‘세계 산의 해’로 지정한 취지는 산이 가진 경제·환경·문화적 기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산은 지구표면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산과 관련하여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65%가 산지인 산악국가로서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이 산은 우리 국민들과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삶의 기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개발조사연구소에서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5%가 연중 1회 이상 산에 가고 있으며 여가를 보내고 싶은 장소로 숲과 계곡을 가장 선

호하고 있다. 또한 98%인 절대 다수의 국민이 산림이 국민의 복지·여가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일제의 수탈과 6·25 전쟁 등을 겪으면서 황폐된 민둥산을 울창한 산림으로 가꾼 놀라운 성공체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성과로 국제기구

(FAO)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녹화를 성공시킨 대표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산림

으로부터 2000년 기준 국민총생산의 10%인 약 50조원에 이르는 공익적 가치를 누리고 있는데 이는 국민 각자가 연간 106만원에 상당하는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2002 세계 산의 해를 맞아 산림청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저명인사 15명으로 '세계 산의 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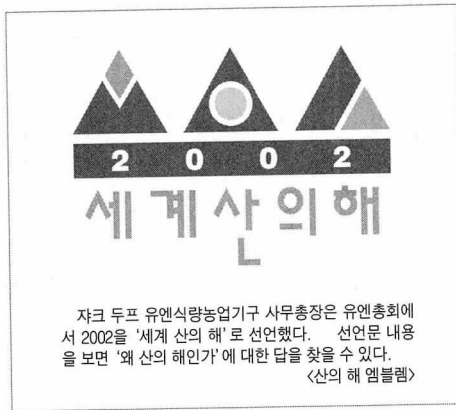
위원회'(위원장 : 황인성 전 국무총리)를 구성하여 '산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조하에 여러 가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금년 4월 5일 식목일에는 임업인과 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

이 참여한 가운데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산림헌장'에 담아 제정·선포하여 산을 가꾸고 지키기 위한 건전한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고, 국민들이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보다 잘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산촌을 '더불어 사는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산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도시와의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 대대적인 산림정화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여름방학기간 중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생태탐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산에 들어가 산을 체험할 수 있는 등산대회 및 숲속음악회 등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행사도 실시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NGO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산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정성으로 「2002 세계 산의 해」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나무로 가득 찬 큰 산이 큰 나라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치산(治山)이 국가의 근본인 것은 21세기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화두(話頭)일 것이다. 「2002 세계 산의 해」를 계기로 울창한 산림으로 가득찬 산이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물려줄 국민적 자산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를 지키고 가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산은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영원한 터전이기 때문이다. ▲▲

